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43명 공개 선발

유치원 1명 · 초등 17명 · 중등 25명… 13일까지 서류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의 혁신과제 수행과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현장지원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진행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유치원 1명, 초등 17명, 중등교원 25명 등 총 43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교육전문직원 교사 1명, 초등 교육전문직원 일반분야 교감 2명·교사 15명을 선발한다.

중등 교육전문직원은 일반분야 교감 1명·교사 21명을, 전문분야는 체육·특수·생물에서 각각 교사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도내 국·공립 유·초·중등 교원과 중등 사립학교 교사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이다. 또 초·중등교사는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 유치원 및 전문분야(특수)는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등 전문분야(체육·특수·생물) 지원자는 일반분야 지원이 불가하다.

교육전문직원 희망자는 응시원서 및 학교장추천서,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류를 갖춰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 근무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현장평가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활동 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된다. 3차 역량평가에서는 심층면접과 상호토의·토론을 통해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포함시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혁신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현장지원 전문성, 소통·협업 능력 등을 갖춘 우수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자 한다"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교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세계한인무역협회 6개 지회 초청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6개 지회를 초청해 1~3일까지 3일 간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유럽의 런던, 파리, 프랑크프르트, 바르샤바와 중동의 이스탄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등 세계 6개 도시 학생들과 가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HATCH 글로벌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은 가족기업의 상품을 소개하는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10여 개 회사 50여 종의 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주)친한F&B, ㈜술소리, 임실치즈농협 등을 찾아 생산시설도 견학했다.

특히 이번 포럼 기간 전주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밸리(Heri-Star)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열어 방문자들이 수준 높은 전통공예의 유럽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주대의 전통문화산업밸리(Heri-Star) 프로젝트는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찾아 전주-남원-순천-여수를 잇는 지역을 전통문화산업밸리로 명명하고,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산업클러스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대 LINC3.0사업단 주송 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참가자들로부터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오는 10월 중 교포 3~4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전남대 청년농부들 "우리는 미래 파트너"

전북대 ONE-YEAH 협동조합 전남대와 동반성장 발판 마련

"우리는 영농창업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 파트너!"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단장 황인호 교수, 동물자원과학과)이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ONE-YEAH(원예)협동조합(조합장 김대준, 원예학과 4학년)이 지난 2일 전남대 청년농부들을 만나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ONE-YEAH(원예)협동조합은 영농창업을 위한 원예분야 실무역량강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참여 학생의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청년농부와 만남은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단장 한태호 교수, 원예생명공학과)의 상호 협력으로 청년창업농과 교류를 통해 예비 청년농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 ONE-YEAH(원예)협동조합은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의 정규 과정을 수료하고 청년창업농 양성 인큐베이션 팜을 통해 육성된 ▲아진팜(곡성), ▲푸릇프릇(나주), ▲맛디아농장·토마토랜드(나주) 등 3개 농장과 전남대 인큐베이션 팜을 방문했다.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ONE-YEAH(원예)협동조합이 지난 2일 전남대 청년농부들을 만나 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대 인큐베이션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플랜트 빌리지와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까지 경험할 수 있다. 현재 인큐베이션 팜은 수경재배 엽채류 재배실을 비롯해 토마토와 수국 등의 스마트팜 온실 등 총 4개 동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은 딸기, 토마토, 멜론 등 시설 작목을 활용한 영농창업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및 영농창업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영농 정착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ONE-YEAH(원예)협동조합 채소작목반에서 멜론 재배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조우석 학생(원예학과 3학년,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3기)은 "영농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실제 청년창업농을 만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파트너로서 관계를 다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은 축산 및 원예 분야의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이론 및 현장 실무 지식을 특성화교과목과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교육사업이다. 전국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전북대학교는 현재 7년째 운영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김상진 대표이사 선임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現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임된 김상진 대표이사는 도쿄대학(東京大學, The university of tokyo) 공학박사로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위원과 대한설비공학회 위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제13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과 공동기기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앞으로 회사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목표로 기존 자회사의 관리와 홍보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겠다."라면서 "지역 내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출자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현재 1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전국 80개 대학 기술지주회사 중 매출 18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 취임식 6일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제8대 박병춘 총장이 오는 6일 오후 3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윤덕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 류정섭 전북도부교육감,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총 2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백년을 넘어 새로운 백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 혁신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임기 내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주간 행사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오는 18일까지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도서관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자인 최덕규 작가의 그림책 '나는 괴물이다!'를 주제로 작가의 1인 공연 및 강연과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떠나볼까? 인형극 여행' 공연이 진행되며, '한국의 멋! 한지 공예', '내 손안에 쏘옥~그립톡 만들기', '감성 듬뿍! 리탄 소품 제작' 등 3개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익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을 통해 5월 5일 14:00까지 신청하면 된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맞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즐거움 가득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서관 주간에 대한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방법은 회관 누리집(https://lib.jbe.go.kr/iec)이나, 전화 840-723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한의대 연구팀, SCI급 논문 '주목'

한약추출물을 이용한 통풍 치료의 새로운 치료 전략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이준호 박사·양갑식 교수·김홍준 교수)이 SCI급 논문을 게재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호 박사

양갑식 교수

김홍준 교수

통풍을 치료하는 천연물 추출물의 기전을 정리한 이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bgy(2020 JCR Q1·영향력지수 5.811)'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최근 5년간 단일 물질이 아닌 천연물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를 분석해 통풍 치료 효능을 파악했다.

또한 천연물 소재가 염증조절복합체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에 관련한 91개의 연구를 수집하고, 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하여 세포 수준이 아닌 동물실험에서 효능을 증명했다.

염증조절복합체는 선천성 면역계의 일부로 세포 내에서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염증반응을 활성화하는 단백질 복합체이다.

특히 연구팀은 8개의 논문 중 염증조절복합체의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에 야국화와 미후도, 홍삼, 호장근, 차전자, 여정자, 노봉방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풍은 관절 내 요산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붓고, 혹이 생기며 뼈가 변형되기도 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46만 7천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이준호 박사는 "다양한 천연물 추출물이 염증조절복합체를 조절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내용에 연구를 집중했다"며 "염증조절복합체 발현 조절 가능성을 가진 한의약 소재의 임상시험 설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로스알라모스硏, 비파괴 검사 특허 기술 이전

배터리 분리막용 소재 이물 검출 장비 개발 특허 기술… 이차전지 시장서 배터리 안전성 향상 '기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가 보유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 특허를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입도분석 전문기업인 ㈜티클기술과 '테라헤르츠파 기반 복합재 구조물 비파괴 비접촉 검사 장치 및 방법'이라는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X-ray나 다른 검사기법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배터리 분리막용 소재 내외부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 이차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특히 기술이전과 함께 지역 외 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해 복합소재 및 이차전지 관련 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강래형 소장은 "연구소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파괴 검사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유연인쇄전자 소자,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제8주기 세월호 추모작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추모시 · 추모편지 두 개 분야서 진행… 총 12편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주관한 제8주기 세월호 추모작품 공모전에서 전주중앙여고 3학년 송다래 학생(추모시)과, 전주덕일중 3학년 송재이 학생(추모편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7~25일까지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월호 추모작품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주제로 추모 창작시와 추모편지 2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모시 287편, 추모편지 77편 등 총 364편이 응모했으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편·최우수상 2편·우수상 3편 등 총 12편을 선정했다.

추모시 부문 대상작 '너희의 봄'은 해마다 4월이면 그리워지는 이름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냈다.

또 추모편지 '고맙고 미안한 선배들'은 8년 전엔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을 미안해하며, 소중한 가치를 되뇌게 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분야를 추모시와 추모편지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